

“부처님말씀 이젠 귀로 읽어요”

삼장법회 시각장애인에 경전 테이프 보시 ‘불교성전’ 5백질 녹음... 50여곳서 주문

이 안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경전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동국대경원후원회 삼장법회(회장 김정호) 회원 50여명이 <불교성전>을 직접 녹음,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 동국대경원후원회 회원 1천5백여명 중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삼장법회는 지난 96년 처음 결성됐다. 이번 <불교성

전> 테이프 제작은 지난 5월, 김정호 회장이 처음 의견을 제안하고 회원들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완성됐다. 김회장은 “삼장법회 결성후 지금까지 월 1회 정기법회와 년 2회 산행법회를 병행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실행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뜻있는 일을 해보자는 회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

는 좀더 보람있는 일을 찾던 중 경전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불교성전>을 녹음해 전달하기로 했다. 테이프 제작에는 총 4개월이 소요됐다. <불교성전>을 모두 녹음할 수가 없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만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별, 모두 12개를 한 질로 묶어냈다.

특히 이번 테이프 제작에는 전문 성우가 아닌 삼장법회 회원 9명이 자원봉사로 나서 직접 녹음에 참여했다. 녹음장소도 전문 스튜디오가 아닌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경비 절감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사찰에서 녹음한

다면 경전 한 구절 구절마다 그 법음이 배여있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사. 방음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의 녹음 작업은 쉽지 않았다. 김회장을 비롯 녹음 봉사자들은 경내가 조용한 아침·저녁시간을 이용, 틈틈히 녹음을 했다. 녹음 제작에 참여한 김보은심 보살은 “녹음에 차질을 가져올까 말도 적게해 목소리를 아끼며, 하루 하루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녹음에 몰두하느라 지난 여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다”며 보람을 토로했다.

삼장법회는 총 5백질의 <불교성전> 테이프를 제작, 22일 동국대 문화관 대강전에서 고불식을 갖고 배포를 시작했다. 김회장은 “벌써 맹아연합회 등 50여곳에서 테이프를 받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며 “전국 어디라도 테이프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발송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02)507-1977

김정은 기자(jekim@buddhopia.com)



◇20여년 동안 군포교에 전념해 온 무공스님(왼쪽)의 원력으로 가평 명지산에 군법사들을 위한 명지사가 건립되고 있다.

군포교 전진기지 조성

무공스님 원력 1천원 십시일반 불사 IMF로 공사 중단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련리에 위치한 명지산 명지사. 20여년 동안 강원도·경기도일대 북부지역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선언적 실천불교·생활불교에서 탈피해 전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작년 3월 삼장날, 전기도 없는 명지산 골짜기에 혼자 올라와 기공식을 단행하고 1년 만에 대형 문수보살 석상을 세우고, 샷시로 만든 임시 법당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님은 IMF 경제한파가 일자 명지사를 찾는 몇 안되는 불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법당을 중단했다. 다만 5백여일이 넘게 계속해 온 ‘불사 원만 회향기도’로 불사를 대신할 줄을 맺었다. 군장병에게 줄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사기 위해 주머니 돈을 털기 일수였던 스님에게는 더 이상 불사를 진행한다는게 무리였던 것이다. “그 나이에 무슨 불사냐는 주

위의 만류를 뿌리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었다”는 스님은 “불사를 이루겠다는 기도가 간절하다면 언젠가는 회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군법사들을 위해 도량을 마련해야겠다는 원을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 지 3년만에 문수보살의 선용으로 명지산에 또아리를 틀었다. 가진 돈으로 해 왔던 74세의 무공스님이 군법사들의 포교 전진기지 도량 건립의 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작년 3월 삼장날, 전기도 없는 명지산 골짜기에 혼자 올라와 기공식을 단행하고 1년 만에 대형 문수보살 석상을 세우고, 샷시로 만든 임시 법당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님은 IMF 경제한파가 일자 명지사를 찾는 몇 안되는 불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법당을 중단했다. 다만 5백여일이 넘게 계속해 온 ‘불사 원만 회향기도’로 불사를 대신할 줄을 맺었다. 군장병에게 줄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사기 위해 주머니 돈을 털기 일수였던 스님에게는 더 이상 불사를 진행한다는게 무리였던 것이다. “그 나이에 무슨 불사냐는 주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동국의료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증축되는 경주병원엔 연건평 1만2천여평 규모에 6백여 병상을 갖춘 매머드 병원으로 거듭난다.

동국대 경주병원 7층병동등 증축

29일 준공기념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료원장 조재호)은 29일 의료원 개원 10주년 및 경주병원 증축준공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황명수 총동창회장, 이원근 경북도지사, 이원식 경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국학원은 지난 96년 4월부터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교계도 손가락 절단 강군둔기 나서 지현스님등 6명 생활·교육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소속 스님들이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에게 손가락이 잘린 강정우군을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불국토 상임이사 해충스님은 불국토 이사스님 6명이 모은 3백만원을 15일 국제신문사엔 기탁했다. 언론을 통해 정우군의 소식을 접한 불국토 이사장 정판스님, 정년스님(내원장사주지), 지현스님(관음사 주지), 범산스님(영주암 주지) 등이 정우군 생활비와 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보광사 장기수 묘역 조성

종교계 최초...27일 금재성씨 유골 안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근본도량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가 장기수 영묘도량으로 개편된다. 보광사는 27일 장기수 영묘 금재성씨의 묘역을 조성하는 것을 계기로 장기수와 양심수들을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남북통일 및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진기지에서 새롭게 자리잡을 전망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근본도량이기도 한 보광사는 교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장기수위원회와 출소 장기수들의 요청으로 일주일 안 초입(初入)에 장기수 영묘(永眠)장소를 마련한다. 종교계 최초의 장기수 영묘지라는 상징성을 갖게 될 보광사는 20일 터를 닦고, 27일 금재성씨의 유골을 49재를 지낸 금선사에서 옮겨올 계획이다.

조직사건으로 18년동안 옥고를 치른 장기수 권낙기씨(52)는 “매장이 아니라 불교식으로 화장할 경우 통일 후에 유골로나마 불자들의 도움으로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광사에 간곡하게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권씨는 “보광사는 위치적으로 북쪽에 근접해 있고 통일전망대와 휴전선 등에 가까운 장기수들이 오고가며 들을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장기수들의 영면지로는 적지(適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광사는 장기적으로 남골당 또는 영탑 건립계획을 세우고 장기수

일산 장안사 남골당 증설

7백60평에 3만5천기 유골 봉안

경기 일산시에 위치한 장안사(주지 병진스님)는 지난 8일 남골당 ‘장안 낙원’ 증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지난 88년 고양시로부터 남골당 허가를 받아 10여년간 남골당사업을 추진해 온 장안사는 총 7백60평 규모의 남골당에 1평당 50기씩 총 3만5천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남골당을 내년 5월까지 1차로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장안사 남골당에는 유골 8백50여기가 봉안돼 있다.

장례종합서비스를 실시해 일반 장례비용의 30%선으로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장안 낙원’은 중앙·제어장치 등 첨단장비를 설치하고 남골당내 제단에서 영정을 화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남골당 ‘장안 낙원’ 관련 사업은 (주)다조산(대표이사 박이두)에서 맡아 진행한다. (02)701-8777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사건회 청화스님 초청법회

대한불교사경회(회장 이양배)는 13일 부산 KBS 홀에서 청화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식전행사로 다도시연과 해원정사의 찬불가 공연으로 법회 분위기를 더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가진 법회에서 청화스님은 “승가 재가를 구분치 않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해야 하며 어떠한 처소에 있더라도 주변의 모든 이들을 부처님 모시듯 하자”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실직자에 무료급식 통도사부산포교원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15일 영광도서 앞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통도사부산포교원은 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동급식 차량으로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2백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통도사부산포교원은 21일부터 성지극수원지로 자리를 옮겨 무료급식을 실시. 실직자를 비롯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심산스님은 “사회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게 부처님의 진정한 자비정신이다. 다만 많은 불자들이 보시한 쌀을 이웃들에게 회향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동 급식차량을 이용, 어려운 이들이 많은 곳에서 신선한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급식은 포교원 신도들이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천미희 기자

부산 청년불자 산악회 25일 창립...웨블 예정

부산청년불자산악회(회장 김정관)가 설립된다. 부산불교신도회 직할 청년회인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25일 오후7시 새마당에식장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70명의 회원이 가입한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매월 둘째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갖고 앞으로 전국 불교산악회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회원 가입문의 (051)464-2020 천미희 기자

불교미술연구소

所長 孫連七

02-285-5963

019-285-5963

無比스님 경전강의 테잎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지장경·진심직설 - 무비스님 직접강의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

● 구입문의 : 02)732-1522 ●

무공스님 경전강의 테잎

범음·범패집

TAPE 목록

- ① 불공의식 ② 삼신이운 ③ 신장정·신중권공
- ④ 상단청 ⑤ 상단권공·거목 ⑥ 대령·관속의식I
- ⑦ 대령·관속의식II ⑧ 대령·관속의식III
- ⑨ 영반·복청소리·대천수소리 ⑩ 영산작법I
- ⑪ 영산작법II ⑫ 영산작법III ⑬ 영산작법IV·지장청사I
- ⑭ 지장청사II·지장권공I ⑮ 지장권공II ⑯ 전시식
- ⑰ 배송 ⑱ 운심계 ⑲ 법사이운·명전집안
- ⑳ 중성·천수작법·요잡

크스승 문구암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테잎 1질 (가격 : ₩50,000)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속의식등 분야별로 녹음

● 구입문의 : 02)732-1522 ●